

보사부 “國內농산물 안전”

584건

농약·중금속 기준치 미달

조 사

양식수산물도 有害물질 검출안돼

쌀·보리·사과·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결과 모두 인체에 해로운 수준에는 크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어·황어·송어·잉어·가물치 등 양식수산물도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잔류검사결과 단 1건의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보사부는 30일 금년 1월 부터 9월까지 보사부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소가 매월 한차례씩 쌀등 29개 농산물을 수거 모두 5백 84건의 검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중 농약등이 검출된 경우는 보사부(국립보건원)자체검사에서 11건, 시도검사에서 20건이었으나 모두 잔류허용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는 수치로 나타났다.

쌀의 경우 全南의 검사에서 유기염소제인 BHC가 0.004ppm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기준치인 0.2ppm에 크게 미달됐다.

보리·옥수수·콩·감자·고구마·배추·양배추 등은 9개월 동안의 반복 검사에서도 단 1건의 검출 사례도 없었고 상추는 忠北에서 DDT, 다이아지논등 3건, 시금치·숙갓도 忠北에서 2건이 검출됐으나 기준치의 1백분의 1이하였다.

또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식수산물도 올들어 모두 67건의 수거검사를 했으나 단 1건의 검출사례도 없었다.

보사부가 밝힌 이같은 검사결과와는 특정한 한두기관의 검사결과가 아니라 전국 각 시도의 독자적인 반복검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검사결과는 그동안 외국농산물의 수입품과 함께 국내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동아일보 10월 30일자. 14면〉